

지 상 범 석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천에 피어있는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법을 설합니다
 온 우주에 널려 있는 것이 법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얘기 하는 것보다 먹어야 해요. '백문이 불여일행'이지요. 내가 심어서 길러서 먹어 볼 때의 상황.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해서 깨치면 바로 수박을 먹는 것처럼 시원해요.

마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풍지벌레 한마리가 살아가서 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온데가 어디입니까. 숨 한 번 들이쉬지 못하면 그때는 가버리고 마는데 간 데가 어디입니까. 갈 때는 바람이 먼저가고 다음에 따뜻한 기운이 가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핵 동치입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균들이 몸에 있어요. 균을 가족부대에 넣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해요. 나라는 존재나 우주가 다 같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충 한 마리가 나라는 존재가 됐을 때 그것이 나나 이거예요. 인간의 세포가 5백억이라 할 때 한 개의 세포가 핵분열까지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되요. 물체 아닌 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불이 있습니다. 이불도 엄청나게 많은 수백억개의 균이 빛을 내고 있어요. 저 불 자체가 보일 정도면 이

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에 인과실이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인과설 말입니다. 과거 무량겁을 전진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축구 잘하는 이들은 과거에 축구도 많이 했기에 축구수가 된 것이예요. 과거에 해박서 현재 더욱 잘해요.

처음보는 사람인데도 답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본것 같고 그래요. 다들 과거에 서로 본 것입니다. 때로는 같이 살았어요.

요새 결혼들하지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현대의 부부는 발안간 좋다고 만나자마자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삶

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을 버려서라도 아니면 누생검을 걸쳐서라도 반드시 도를 깨닫고 말겠다는 굳은 서원을 지니고 수행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 벽계스님이란 분이 계시어요. 죽가에서 스님을 심하게 탄압하자 숨어살았어요. 벽계스님의 법력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벽계스님이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두 스님은 함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벽계스님은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근근이 먹을 것을 마련하고 벽계스님은 머리를 깎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3년동안 시봉을 했는데도 법이니 도니 일체 말이 없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고 있고 3년을 허송세월 했나보다. 이제 떠나야겠다"며 벽계스님이 집을 쟁겨서 나가는데 벽계스님이 "벽송아"하고 부르는 겁니다.

벽계스님은 멀리서 스승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절대 돌아보지 말자고 다짐하고는 그냥 걸어갔어요. 다시 "벽송아"하고 불렀지만 두 주먹을 불끈쥐고 갔어요.

그러자 벽계스님이 또 "벽송아"하니 안볼 수도 없고 해서 고개를 돌렸습니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5
 양 형 진
 불일불이

중론에는 불일불이와 관련되는 계승이 여러 군데에 나온다. 대표적인 것만을 우선 살펴보자.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면 이러한 일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인과의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면 능생(能生: 생겨나게 하는 것)과 소생(所生: 생겨나는 것)은 동일한 것이 되며,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고 한다면 원인은 원인이 아닌 것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원인과 결과는 연기론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용수보살은 이를 능동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서의 능생과 수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의 소생 즉 능소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이 관계를 불일불이(不一不異)라고 하였다. 이를 원자의 세계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수소 원자 두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결합하여 물 분자를 이룬다. 수소 기체란 아주 가벼운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과거에는 비행선을 제작하여 하늘에 띄우기도 하였었다. 산소란 생물이 호흡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특히 식물은 이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면서 생물계 전체에 먹이를 제공한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이룬다는 관계에서 본다면, 수소와 산소는 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므로 능생이며 물은 수소와 산소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므로 소생이 된다. 물론 여기서의 능생이나 소생이라는 위치는 관계

가 어떤 특정한 시기의 인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붓다의 진실한 가르침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언제고 쉽게 곱을 수 있는 그릇된 견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말로 할수 없는 중도의 진실을 無記로 보여 '수소·산소·물' 인과동일·차별아닌 연기관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석존 말 후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등에서와 같이 세계는 상주한다는 등의 견해가 불교 내부에서까지 융성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용수는 사성제(四聖諦)와 연기설을 근간으로 하는 붓다의 중도사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여, 외도의 견해를 그 근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파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용수보살이 중도사상을 주창하게 된 동기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용수보살은 위의 계승에서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전면내 내세우는 일은 거의 없이, 외도의 견해를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비판하여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데에 중론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물론 외도 사상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상승 진리의 진실한 뜻은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고 따라서 언어적 표현으로는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릇된 견해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의 사상이란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인과동일의 입장이며 '異'의 사상이란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인과차별의 입장이다. 이러한 일(一異)의 입장은 유자성론(有自性論)의 과실이다. 사물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 혹은 능생과 소생의 존재성이 동일하든가 아니면 다르다는 그릇된 견해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는 파

우리가 매일보는 셋별 보고 부처님은 성불 지적 허욕위한 공부는 구름 처럼 허망한 것

다시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수 많은 군입니다. 5백억개의 세포군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균을 화장터에서 화장하면 죄다 없어져 버립니다. 입자나 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것마저도 궁극에는 없어져요. 입자를 분리하면 전자 핵으로 나뉘고 더 나뉘면 물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까지 갑니다. 이것이 물질이 나 물질이 아니냐 하는 점을 연구하면 많은 물리학자들이 존재의 근원을 밝혀려 하였고 각각에서는 이에 대해 수 많은 가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구태여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존재론적으로 해부하자면 지구화중 시대에서 나와서 지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 한개의 미분자예요. 마칠내는 가는 곳 없이 헤어져요. 그러니 산것도 아니고 죽은것도 아닙니다.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무엇인가. 내 몸이

무 말할 수 없는 균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허공에 일본 대만 홍콩 바이러스가 있다고들 해요. 여러분들 이 허공에도 엄청난 균들이 있어요. 보입니까. 못봐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전자현미경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연과학대학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자주 만나는데 안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손등을 깨끗이 씻더라도 전자현미경 위에 얹어놓고 보면 균 부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손이 이렇게 더러운가. 모두들 깜짝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 손을 닦고 또 이쁘라고 얼굴에다 케이트 칠하고 야단칩니다. 더러운데다 지구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뢰야적이 있지요. 이것이 요새 컴퓨터의 하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여기에 입력해 놓는 겁니다. 내가 무량겁을 살았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과거 내가 어느 세상에서 누구며,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떤 일

지만 할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우 도망가고 또 싫은 사람이 옆에 와서 칭얼거리며 살아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과거에 사람으로 부부가 되기도 했고 낳짐승으로 축생으로 활것없이 여러가지 인연을 맺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금생에 사람이 되어 만나기도 하지요.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부부였기에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녜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도연명이 하루는 도를 배우고자 스님을 찾아갔어요. 도연명이 스님을 찾아 산에 올라가보니 스님이 절벽의 나무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스님 위엄합니다."

"나는 위태롭게 앉거나, 자네가 더 위태롭네."

하고 반대로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도연명은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참구하다 보니 나온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생불멸'의 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절하게 불법의 근본 의미를 법이란 자기가 얻는 것이지 스승이

다. 그러자 벽계스님이 주먹을 보이며 "도 받아라"하는 겁니다. 여기서 벽계스님이 환안대조를 했습니다.

이 주먹에 무슨 주고 받을 도가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새벽에 셋별을 보았는데 매일 똑같은 별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벽계스님도 그 도를 얻으려고 3년 동안 나무를 한 것입니다. 오직 불법만을 찾은 것이지요. 그러니 도 받아라 하는데 환안대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은 마당술다가 밭에 채인 들을 주위 대나무 밭에 던지자 대나무가 내는 뽕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그렇다면 도가 뽕맹이에 있느냐, 대나무에 있느냐, 대나무와 들이 만나서 소리가 나는데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생불멸'의 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절하게 불법의 근본 의미를 법이란 자기가 얻는 것이지 스승이

불교 정론지

월간 대중불교 5월호
 (제)대원정사 월간 대중불교 / 값 3,500원

부처님 오신 달 5월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 <대중불교>를 만난다

지행 15호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누가 승강사 상관을 흥취 갖느냐
 16구사 진영의 기적 / 김봉우
 부처님 오신 날 전에
 한강위계 승강사 상관을 흥취 갖느냐
 대륙, 불자들은 어떻게 기도 / 송동 회계
 나사야 한다 / 송동 회계

대중불교의 빛을 아끼지
 충무대학교 교수 불사회 '대원회' 김희준
 성황불교 · 미주총회 조철
 교리산책, 이숙연과 이숙과 정수익
 부담 이야기, 김진 무위사 구하준
 정취보살, 일심행, 송동 회계
 인가연재/수행으로 가는 길, 구수원 진영의 해탈, 송동 회계

포교당 일기 · 배양 위외 사람들 완주
 김상영, 최해신
 불교와 민속 ·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
 만능의 김중대

4회연속특별기획3
 지방자치 이후, 이렇게 달랐다 / 김봉준
 최복소리 · 윤민 사람을 보는 종교 / 김봉준
 귀담아 듣고 · 불전과 쇠사도 / 배기성
 시사 · 70년 골짜기 건물을 걷고있다 / 송동 회계

스님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처님 / 김봉준
 신해수기 · 나는 '꿈' 한 그릇으로 간다 / 송동 회계

특별기고 / 중국과 지방자치의 신라 스님이었다 우봉규
 관란부부 · 불교평론 교리강좌 이명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514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데미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리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718-0973-4 • 호출기: (015)305-3933 • 담당자: 이 계 천